선학원 비대위 출범… 상임대표 자민 스님

5월 2일 광진구 기원정사서 "대중 권익 위해"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선학원 이사회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선학원 개혁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과거 '선학원의 미래를 생각하는 분원장 모임'이 보다 확대된 것으로 상임대표는 자민 스님이 맡았다.

선학원 개혁 비대위는 5월 2일 서울 광진구 기원정사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선학원 이사회 개혁을 천명했다. 상임대표는 천안 연대선원 창건주 자민 스님이 추대됐으며, 전국비구니회장 육문 스님과 前선미모 상임대표 법상 스님, 선학원 건물서 단식정진에 나섰던 설봉 스님 등 40여 명의 스님들이 출범식에 참석했다.

비대위는 지난 3월 21일 시국선언을 한 원로들에 대한 선학원 이사회의 회의에 이어 설봉 스님 단식정진 과정을 거치며 조직 구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당시 선미모는 이사장 법진 스님과 분원장들 간의 갈등이 선학원 역사에 있어 총체적 위기상황이라고 판단, 현 집행부 이후를 대비해 제반 문제를 점검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이에 4월 9일 선미모 18차 운영위원회에서 비대위 발족을 결정하고, 위원장을 필두로 △자문단 △실무팀 △운영위원회 등을 조직했다.

비대위는 선미모의 활동을 계승하면서 △성추행 이사장 거취 처리 문제 △선학원 이사회의 조계종 제적원 제출 강요 △이행강제금 등 삼보정재 손실 △빈번한 사고사찰 지정 위기감 팽배 △분원장 임명권 남용 △조계종단과의 갈등 해결 난관 등을 핵심 현안으로 제기했다.


상임대표 자민 스님

선학원 이사장 사퇴 촉구한
선미모 확대… 원로도 동참
자문단 · 실무팀 · 운영위 구성
"이사회 개혁에 뜻 모아주길"



5월 2일 광진구 기원정사에서 열린 선학원 개혁 비대위 출범식.

"도제들, 선방도 못 다닌다"

이 자리서 상임대표 자민 스님은 "과거 어른스님들은 물이 오래 고이면 썩는다고 했다. 그런데 법진 이사장 물은 그 때보다 더 고였다"며 법진 스님의 이사장 3선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현재 입산자가 줄고 도제들은 설 땅이 없다. 선학원 도제라는 이유로 종단에서 각종 제재를 받는다. 법진 스님에게 분원장들의 고충은 들여다봤느냐고 물었지만 답이 없었다"면서 "제가 선학원에서 감사 18년, 이사 12년을 하면서 지금과 같이 이사장 하자는 대로만 하는 막된 이사회는 여태껏 없었다. 3월 21일 회의서도 문을 걸어 잠그고, 이사장은 경찰보호 아래 점퍼를 뒤집어쓰고 야반도주했다"고 강조했다.

자민 스님은 이어 "성찰과 혁신을 통해 이사회가 새롭게 정비되지 않으면 선학원은 미래가 없다. 시대를 선도할 새로운 비전을 마련하고, 이사회가 지금처럼 독주하지 않도록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모든 행정이 선학원대중의 권익을 위해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다음에 올 이사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중이 함께 나서자"고 당부했다.

자민 스님은 또한 "범어사에서 출가하고 절을 일궈 큰스님들의 조언에 따라 선학원에 등록했다. 다른 도반들을 설득해 선학원에 등록한 사찰만 20곳이 넘는데 지금은 도제들을 선방에조차 보내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하루 이틀에 해결될 일이라고 보지 않는다. 다만 대중이 뜻을 모아 뭔가 한다는 걸 다른 분원장들에게 보여줘야 할 때다. 선학원 창립정신을 회복해 혁신하는 그날까지 노력을 기울이자"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앞으로 선학원 이사회 개혁을 위해 정관 및 제 규정 등을 검토 후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분원과 대중스님들의 권익 선양을 비롯해 선학원 역점사업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비대위 상임대표 자민 스님은 1954년 범어사 대성암에서 혜진 스님을 은사로 사미니계를, 1962년 범어사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니계를 수지했다. 내원사 등 10안거를 성만하고, 개심사, 청용사, 운문사, 흥국사 등 비구니 강원 강주를 맡았다. 선학원 감사 및 이사, 제7~9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전국비구니회 수석부회장을 역임했다.

태고종-베트남승가회 공식교류 협약 맺어

각국 불교대학 교류도 합의

태고종(총무원장 편백운)은 4월 26일 베트남 국립불교승가회 본부에서 공식교류 조인식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과 베트남 국립불교승가회장 틱 티엔 넨 스님이 참석했다.

태고종은 베트남 승가회와 공식 채널을 가동, 정기적인 교류대회를 갖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양측은 △동방불교대학과 베트남불교대학의 학술 · 학생 교류 △한국 내 베트남사원 건립과 베트남 내 한국사원 건립을 합의했다. 또한 27일 동방불교대학과 베트남불교대학 MOU를 체결, 틱 지악 토안 상임부총장스님과 실무사항을 협의했다. 윤호섭 기자

총무원장 선출제도 개선 '적신호'

조계종 특위, 회의 성원 미달… 봉축행사로 난항 예상

5월 1일 회의에 4명 참석
6월 임시회 개최도 불투명

조계종 총무원장 선출제도 개선을 위한 중앙종회 동력이 점차 떨어지는 모양새다. 관련회의조차 제대로 열리지 못한데다 내달 6월 중앙종회가 소집될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원장 선출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초격)는 5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제7차 회의를 소집했지만 15명의 위원 중 4명만 참석해 성원 미달됐다. 참석자는 위원장 초격 스님과 위원 화림 · 선광 · 덕문(통도사) 스님. 특위는 회의 대신 간담회로 전환해 간략한 의견을 나눴지만 3월 14일 이후 현재까지 회의가 이뤄지지 않아 어떤 가닥도 잡지 못한 상황이다. 특위는 3월 27일 소집하려던 회의를 연기해 이날 열었지만 무산됐고, 결국 4월 중 개최키로 의견을 모았던 공청회 또한 '함흥차사'다.

특위는 간담회를 통해 차기회의서 직선제 · 추선제 · 간선제(현행) 보완 중 하나의 결론을 도출한 뒤 세부안을 정리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회의 참석률이 저조한 위원에 대한 교체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로 했다.

위원장 초격 스님은 "3월 13일 이후 오늘이 첫 회의다. 6월 종회 전까지 의안을 성안하려면 공청회와 지속적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일정이 안 맞은 것 같다"며 "원활한 회의를 위해 위원 교체 논의를 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선광 스님은 "우선적으로 추대, 간선, 직선 등 큰 틀을 잡아놓은 뒤 세부적으로 접근하는 게 순서다. 다음 회의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위 간담회는 20분 만에 종료됐다. 차기회의 일정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진 않았지만 부처님오신날까지 각종 종단 행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회의는 5월 22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성안까지의 숨 가쁜 일정과 종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개원이 불투명한 6월 임시회가 특위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윤호섭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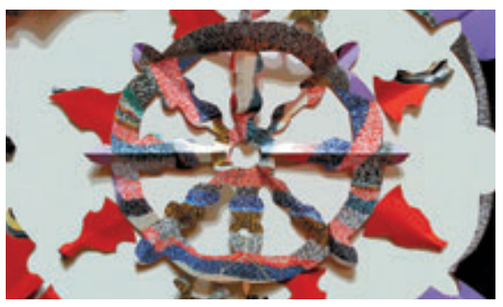


성운 스님의
보리수 아래서

팔정도 열반에 이르는 여덟가지 바른길

*팔정도(八正道)는 고(苦)의 원인인 갈애와 집착을 완전히 소멸하여 해탈 열반에 이르는 여덟가지 바른 수행의 길입니다. 쾌락과 고행의 양극단을 떠난 중도(中道)로서 사성제 중 도제(道諦)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팔리어의 '성스러운 여덟가지 요소의 길' 팔지성도(八支聖道)가 팔정도로 한역됐는데,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성스러운 길이라는 뜻입니다. 경전에서는 '어떤 사람이든 이 여덟가지 길을 걷게 되면 열반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잡아함 18권 염부차경〉


제목 · 팔정도 그림 · 조향숙

쾌락 · 고통 양극 떠난 中道
팔정도, 계 · 정 · 혜에 포함
여덟단계 서로 유기적 결합

*팔정도는 정견(正見)으로 시작합니다.

①정견 올바로 보는 것, 바른 견해입니다. 사성제와 연기, 삼법인의 이치를 바르게 보는 지혜입니다.

'집제가 있으므로 고제가 있고, 도제가 있으므로 멸제가 있다.'

이처럼 사제(四諦)를 닦을 때 법을 잘 결택하여 통찰하는 지혜가 있어야 팔정도 수행을 선도합니다.

②정사유(正思惟) 올바른 생각과 마음가짐입니다.

③정어(正語) 바르게 말하는 것으로 정사유에서 나오는 언어적 행위입니다. 거짓말(忘語), 이간질 하는 말(兩舌), 나쁜말(惡口), 속이는말(綺語)을 하지 않고 진실하고 유익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④정업(正業) 올바른 행동입니다. 살생, 도둑질, 사음하지 않는 것으로 정사유 뒤에 오는 선행입니다.

⑤정명(正命) 바른 생활입니다. 건전한 직업과 일상을 뜻합니다.

⑥정정진(正精進) 바르게 노력하여 선(善)을 닦는 것입니다.

⑦정념(正念) 올바른 마음 챙김입니다. 늘 맑은 정신으로 불교의 가르침을 잊지 않는 수행이죠.

⑧정정(正定) 올바른 삼매 또는 선정을 뜻합니다.

*팔정도는 계율 선정 지혜(戒 · 定 · 慧) 삼학(三學)에 포함됩니다.

덕목별로 분류하면 정어, 정업, 정명은 계(戒)입니다. 몸과 입과 뜻(身口意)의 삼업(三業)이 청정하여 탐진치 삼독 업의 덩어리를 다스립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익되는 올바른 말과 행동과 생활을 하는 도덕적 수행이며 사회 윤리 규범을 지키는 지계(持戒)의 삶입니다.

계를 지켜 모든 사(邪)가 정(正)이 될 때 선정(禪定) 즉 정념과 정정이 나옵니다. 정(定)은 모든 행동을 지켜보며 번뇌를 막고 집착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경지입니다.

정(定)에서 해탈로 가는 통찰의 지혜가 생깁니다. 그 지혜(慧)가 정견과 정사유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사물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깨달음입니다.

정정진은 모든 덕목에 해당됩니다.

지혜의 빛 양심의 자리가 여덟단계로 연결되어 있는 팔정도는 피안으로 가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열반전 밤늦게 찾아온 120세의 수행자 수바드라에게 팔정도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 수행자는 마지막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최초 · 최후의 제자에게 팔정도를 설하셨습니다.

개인의 수행 뿐 아니라 사회와 국가간의 관계에도 길을 제시하는 성스러운 팔정도의 길을 걸읍시다.

〈삼천사 회주 · 동국대 석좌교수〉

보련기획 BORYEON
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조립식 도량장엄등설치

전문인력, 장비없이 조립·해체 가능
다목적 활용으로 경제적
기둥을 최소화하여 공간활용 극대화
도량 면적과 형태에 따른 다양한 연출
법당연등 자동승강장치

법당 고정식 연등설치

천불전

인등

위패

공단등

만월등

불기등


사찰 고유의 디자인으로 제작 가능
www.boryeon.com
010-5381-9355 /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